

달리는 지하철, 춤추는 무료신문

‘기사’를 읽기보다 ‘마사지’ 받기 위해



글_김기태 매체문화평론가·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2년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첫 선을 보였던 무료신문의 위용이 예전만 못하다. 전반적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못하고 독자들의 반응도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무료신문 하나쯤 손에 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던 때와 비교하면 좀 의외다 싶을 정도로 인기 하락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료신문은 발행되고 있고 적지 않은 출근길 직장인들이 아직도 무료신문을 읽고 있다.

적자현실에서도 새로운 무료신문 탄생

지난 5월 무료신문 <데일리즘>은 <스포츠서울> 기획위원 출신 경력기자를 새 편집국장으로 영입,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기독교방송(CBS)은 역시 무료신문 <데일리노컷> 창간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 무료신문이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료신문이 탄생하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무료신문의 미디어적 가치 또는 기능면에서의 진단이 필요할 듯하다.

지난해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무료신문 독자들은 저널리즘 특성과 관련한 각 요소의 중요도 평가에서 종합일간지에 중립성/공정성, 전문성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접근성(80.2%), 신뢰성(74.7%), 흥미성(74.3%), 신속성(73.6%), 다양성(70.8%), 중립성/공정성(64.7%)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들은 결국 무료신문을 하나의 언론매체로 보기보다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오락적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저널리즘의 원조격인 종합일간지를 요약한 또 하나의 신문인 무료신문이 과연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런 근본적인 점검으로부터 무료신문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료신문을 읽는 독

자들의 수용 문화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무료신문 읽기는 곧 우리 사회 전반의 읽기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출판물 등 활자를 읽는 독자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짧고 쉽고 재미있는 기사, '읽기' 능력 저하

우선 무료신문은 문장이 지나치게 짧다는 데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일간신문의 기사 문장 자체가 군더더기 없는 단문 중심인데 이를 다시 요약하거나 발췌하는 무료신문 기사는 더 짧아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본래 저널리즘 문장의 정신(?)이 구현되기보다는 아예 무슨 뜻인지 자초지종이 전달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기사를 읽기는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 이유인 셈이다.

다음으로 무료신문 기사는 신문을 읽는 독자들의 환경을 고려해서 최대한 쉽게 쓰여져야 한다는 점이다. 쉬운 제목, 쉬운 문장, 쉬운 내용을 추구하다보면 역시 기사의 전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수많은 정보를 접했는데도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짧고 쉬운 문장으로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갈수록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선택되고 포장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손쉽게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장 야하고 말초적 감각을 건드리는 기사와 사진을 강화하는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재미와 흥미가 가장 중요한 기사 선택 기준이자 기사 작성 요령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무료신문 기사의 특성들은 결국 우리나라 출판 독자들의 책읽기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기태**